부산에 찾아온 조혈모 세포 기증 'BOOM' 〈붐〉

부산생명나눔, 4월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부경대 · 동아대 · 신라대 · 동명대 대학생 및 일반인 892명 참여
조혈모 세포 기증 통해 희망전해
"환우에게 새 생명 줄 기회 감사"



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는 4월 한 달 동안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실시해 대학생 및 일반인 892명이 동참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백혈병과 혈액암 환우에게 완치의 희망을 안겨주는 조혈모 세포 기부 등록자가 4월 한 달 만에 부산에서 892명이 등록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이하 부산생명나눔)는 4월 한 달 동안 4차례에 나눠 부경대, 동아대, 신라대, 동명대에서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부경대 156명, 동아대 329명, 신라대 173명, 동명대 234명이 참가해 큰 성과를 이뤘다.

4월 19일 동명대학교 산학협력관 앞에서 진행된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마지막 날, 생명나눔 부스에는 대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나가는 길에 캠페인 취지에 공감해 동참하기도 하고, 친구에게 캠페인에 대해 듣고 찾아오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은 모두 좋은 일에 동참해 기쁘다는 반응이다.

신예림(동명대 · 시각디자인1) 학생은 "사실 조혈모 세포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다. 그러나 백혈병으로 아픈 아이에게 내가 혹시나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쁘겠다"며 "DNA가 맞지 않더라도 희망을 전하는 일이니 동참할 수 있어 좋다"고 뿌듯해 했다.

대학생 뿐 아니라 직장인도 나섰다. 배은경(37 · 김해) 씨는 "자녀가 1명 있는데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조혈모 세포에 대해 들은 적 있다. 그 때는 흘러들었는데 캠페인 부스를 보고 바로 찾아왔다"며 "동참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기뻐했다.

부산생명나눔은 캠페인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찾는 것과 동시에 조혈모세포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는 것도 목적이라 설명했다.

이현주 부산생명나눔 홍보담당은 "조혈모 세포는 혈액을 만들어 내는 엄마 역할을 담당한다. 백혈병과 혈액암 환자들이 이식을 받으면 완치할 수 있는 중요세포다. 현재 의학으로는 조혈모 세포를 회생시킬 수가 없기에 기증만이 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NA가 맞을 확률이 수천, 수 만분의 일이기에 많은 기증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기증법도 간단한 수혈 형태라 알고 나면 기증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생명나눔은 지난 2006년 7월 21일 창립해 조혈모 세포 기증 희망 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지난해 창립 10주년을 기준으로 31회 캠페인을 펼쳐 부산 지역본부에서 총 4799명이 조혈모 세포 기증을 등록했으며 전국 생명나눔 지역본부 가운데 가장 많은 수로 집계됐다. 부산생명나눔은 조혈모세포 기증 사업 뿐 아니라 장기기증, 인체조직 기증, 환우돕기, 헌혈증 지원, 자살예방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성미 기자

"佛法으로 범죄 없는 사회 발원"

4월 14일 부산지방경찰청 경승실 봉축기념법회



부산지방경찰청 경찰들이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기념 법요식을 마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범죄 없는 세상을 이룩하는데 더욱 앞장설 것을 발원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경선)은 4월 14일 부산지방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봉축기념 법요식을 봉행했다.〈사진〉

허영범 청장은 "부처님은 타인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비와 해탈의 가르침으로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다"며 "우리 부산 경찰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훈삼아 범죄 없는 세상,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선 스님은 "다양한 삶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산다면 삶이 행복하고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면서 "여러 경찰들의 헌신으로 국민들이 평안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다. 행복한 부산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대광명사, 전법과 자비 도량으로 우뚝

개원 8주년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초청법회



부산 대광명사가 해운대구에 문을 연 지 8년 만에 정법 전법도량 및 자비 실천 도량으로 우뚝 섰다.

대광명사는 4월 16일 법당에서 개원 8주년을 기념하는 특별법석을 마련하고 앞으로 부처님 자비광명을 전하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사진〉 아울러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도시락 나눔을 실천하는 사무량심 회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은 "대광명사는 해운대 뿐 아니라 부산, 그리고 불교계 전체의 대광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우리 불자님들로 인해 가능했다"고 감사했다.

이날 법문에서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개원 8주년을 축하하며 "불교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다. 도 혹은 법이라고 하는 이 말들은 결국 한 마디로 요약하면 '행복'"이라며 "바르게 믿어 실천하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사하구불교聯, 수륙대재 통해 한마음 발원

제1회 국태민안수륙대재 봉행


사하구불교연합회는 4월 16일 '제1회 국태민안륙대재'를 봉행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정과 평안을 기원하는 수륙대재가 개최됐다.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혜우, 이하 사하불교聯)는 4월 16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 수협공판장에서 '제1회 국태민안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사하불교聯은 현재 시국으로 인해 상처 받은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어민들의 안전 조업과 풍업을 기원하고 바다에서 생명을 잃은 유주무주 고혼들의 넋을 기리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혜우 스님은 "현재 국가 안보적인 문제와 경제, 그리고 정치까지 힘든 시기"라며 "오늘 이 수륙대재는 사하구 지역 어민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로 뜻을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열었다"고 설명했다.

김흥남 사하구불교연합회 신도회장은 "예로부터 나라가 힘든 시국에는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부처님께 기도하고 그 위신력을 기원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사하불교聯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수륙대재가 지역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이는 다대포가 역사적으로 왜구의 출몰이 잦은 국방 요충지였으며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전투, 부산진성 전투와 함께 부산지역 3대 전투 현장임을 알려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현재 다대포에는 임진왜란 다대성 전투의 영웅 윤흥신 장군과 전몰 장병을 위한 제단인 윤공단(부산 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 9호)이 있다.

한편 수륙대재에는 회장 혜우 스님, 총무 송우 스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이용덕 사하구의회 부의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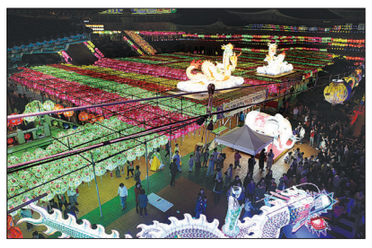
하성미 기자

삼광사, 5만 연등으로 무명 밝히다

봉축점등대법회, 국운융창 · 국민 화합 발원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가 연등을 밝히고 어두운 무명세계가 부처님의 지혜로 밝아지기를 기원했다.

삼광사는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대법회'를 4월 16일 지관전에서 봉행했다. 삼광사 연등은 'CNN GO'를 통해 '2012년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선(50 beautiful places to visit in Korea)' 중 한 곳으로 소개될 정도로 큰 규모와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올해 삼광사는 33인등, 연등, 비단등, 동물등, 사천왕등, 별등, 탑등, 봉황등 등 5만 개의 등에 불을 밝혀 봉축했다.


삼광사는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대법회'를 4월 16일 지관전에서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춘광 스님, 원로위원 문덕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을 비롯해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상월원각대조사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봉행사 △점등사 △점등법어 △치사 △축사 △축가 △발원문 △점등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됐다.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은 "불자는 봉축을 맞아 무명을 밝히는 등을 달고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향이 충만하기를 발원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더욱 빛나고 법의 수레바퀴를 늘 쉬지 않게 굴려서 국민화합을 이끌어내고 남북은 물론 세계가 평화로운 연화장 불국토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삼광사는 4월 16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2일 오후7시 봉축전야 점등식과 5월 3일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을 연다. 아울러 5월 2~3일 간 체험부스 및 먹거리 장터를 마련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능대회도 5월 3일 경내 백천공원에서 개최한다.

하성미 기자

혜암 대종사 98세 탄신 기도법회

해인사 원당암 경내 선불당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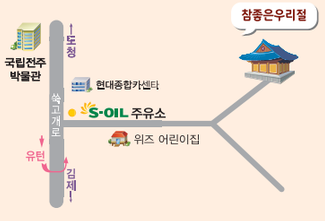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 98세 탄신기도법회가 4월 18일 해인사 원당암 경내 선불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자리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과 혜인문도회장 성법 스님, 문도대중 스님, 청신녀, 청신남 재가불자 100여명이 동참했다.〈사진〉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혜암 큰스님은 평소 신심과 청결로 선방불사를 회향하면서 대중과 뒷사람이 잘 살아가도록 하셨다"며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문도 스님들과 재가신도들이 더욱 열심히 수행 정진한다면 자기 성찰과 불교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도회장 성법 스님은 "'공부하다 죽어라'란 큰스님의 수행을 본받아 수행정진하여 성불의 길을 걷는 것이 큰 뜻을 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혜암 대종사는 1946년 해인사 인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총림 방장과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역임했다. 평소 '공부하다 죽어라'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에게 수행정진을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3회
다꿈어울림 문화축제 한마당
일시 | 2017년 5월 3일 (수) 11시 ~ 15시 장소 | 참좋은우리절 앞마당 (전주시 삼천동 소재)

행사내용
제10회 천년전주한지 전통 등 만들기 대회
• 일시 : 2017년 5월 3일(수) 오전 11시~ 오후 4시
• 참가부문 : 2인 이상의 가족이나 친구
• 주제 : 자유선정
• 참가비 : 무료
• 시상내역 : 전라북도지사상, 전라북도교육감상 전주시장상, 라훌라의 착한벗들상
• 부상내역 : 입선한 10팀에게 문화상품권(2만원) 증정
• 심사결과 : 대회 당일 현장발표
※ 참가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최 및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참좋은우리절신행연합회 라훌라의 착한벗들
• 후원 :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제3회 다꿈나눔 장기자랑 대회
• 일시 : 2017년 5월 3일(수) 오전12시 30분~오후3시
• 참가부문 : 노래, 무용, 악기연주
• 참가자격 : 장기를 자랑하고픈 모든 이 (총 10개팀) ※ 단체참가팀에게는 가산점 부과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
• 부상내역 : 최우수상(1팀) : 20만원 우수상(2팀) : 10만원 장려상(2팀) : 5만원 ※ 참가팀에게는 별도의 경품 증정
• 신청방법 : 소정양식 1부
• 주최 및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참좋은우리절신행연합회 라훌라의 착한벗들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 전북은행
부대 행사
아시아문화놀이 및 음식체험, 행운권 추첨, 나눔기금마련 외
찾아오시는 길


| 주최 및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참좋은우리절 Chamjoen Urijeol 사단법인 착한벗들 문의 및 참고 | 063) 236-6633, cafe.daum.net/urijel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